

선혜 스님 다예도구 141점 기증

보성차박물관 중국관에 전시 예정

선혜 스님(서울 법륜왕사 주지)이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차박물관에 141점의 다예 도구를 기증했다. 이는 스님이 지난 3년 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의뢰하여 제작된 것으로 대만 우롱차, 말리화차, 용정차, 광동 우롱차, 홍차, 보이차 다예도구와 물항아리 등 총 7건 141점에 이른다.



다예도구 141점을 기증한 선혜 스님

선혜 스님은 "이번 기증 다예도구 중 경적진 자기는 공장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해 들어온 것들"이라며 "작년에 개관한 보성차박물관의 중국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기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인승대학교를 졸업하고 10여년간 전국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하면서 정진했다. 행자시절부터 차(茶)와 시(詩)에 남다른 관심과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스님은 효당 최범술스님 문하에서 본격적인 차공부를 했고, 1980년 강남 봉은사 앞에 '차회(茶會)' 석정원을 만들어 차문화를 보급했다. 그동안 1000여편에 달하는 왕성한 시작(詩作)활동을 펴온 스님은 지난 7월 첫 다시집 <차인의 향기>를 출간했다.

정혜숙 기자

젤상추키 2집 '화개시절' 발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 젤상추키의 2집 앨범 '화개시절'이 한국에서 발매 됐다. 화개시절에는 감로와 다와돌마 등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담겨 있다. 티베트 전통민요와 찬불가뿐만 아니라 티베트 애국가와 창작곡들까지 총 12곡이 담겨 있다. 티베트 전통악기와 추키의 목소리가 피아노, 첼로, 기타 등 현대악기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Where's the Heart Blossoms 젤상추키 2집 '화개시절' 표지

그는 앨범 제작과 자신의 음악적인 영역을 더욱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인도와 티베트의 국경 인근지역에 머물면서 옛 문헌들을 공부하고 수많은 라마 고승들, 전문가들과 학자들로부터 티베트의 전통노래들을 배웠다고 한다. (011)415-1798

정혜숙 기자

춘천박물관 '봄을 찾아온 동자'展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4월 14일까지 '명품순례, 봄을 찾아온 동자'전을 개최한다.



김홍도 작 '구름위의 신선들'

이번 전시는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의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畫)에 등장하는 선동(仙童)을 비롯해 동자들을 그린 조선 후기 회화 11점을 선보인다.

김홍도는 풍속화가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그렸다. 특히 신선 그림은 생생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 표현, 번짐 효과를 잘 살린 작품이 많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은은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033) 260-1521

정혜숙 기자



거사로 보는 중국불교사

중국불교의 거사들

거사, 중국불교를 일으키다

거사들의 생애와 활동, 사상을 통해 중국불교를 읽는다! 중국에 불교가 뿌리내리고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가 거사들의 뛰어난 활약이 있었다. 이 책은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거사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교를 위해 헌신하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개괄하였다.

김진무 지음/신국판/37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서점: 불타북 www.buddhabook.co.kr

불교로 문학지평 넓힌 한국 문단의 거장

김동리 탄생 100주년... 불교와 삶 그리고 문학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는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미묘한 충격을 나는 어떠한 말로 써도 설명할 길이 없다. <중략> 많은 부처님 가운데서 그렇게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부처님(등신불)이 한 분쯤 있는 것도 무방한 일일듯했다"

스스로 소신공양을 해 부처가 된 등신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 중 일부분이다. 올해는 소설가 김동리 작가(1993~1995)의 탄생 백주년이다. 해다. <등신불> <무녀도> <역마> <황토기> 등 불교와 토속신앙 등 전통을 아우르는 그의 작품세계는 한국 근현대 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본지는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동리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을 조명해 보고 김동리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기념사업 등을 정리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김동리는 불교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어머니의 권유로 어린시절 교회에 나갔고 미션스쿨에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개신교는 생활의 방편일뿐 자신의 종교라 여기지 않았던 그는 17세에 학교를 중퇴한 이후 줄곧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문학적 소양을 키워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가였던 한용운 스님과 최범술 스님이 기거했던 경남 사천의 다솔사는 김동리 문학의 산실이었다.

김동리기념사업회 김지연 회장은 "김동리 선생의 문학과 삶에 불교는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님의 대표작인 <등신불>은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이는 다솔사 해인사 등을 근거지로 집필 활동을 펼쳤던 선생님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리는 하루종일 다솔사 산사 주위의 경관을 맴돌며 한 거울을 보내고 해인사가 참선을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일제 강

점기의 서러움과 답답함을 참선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김동리는 다솔사가 운영하는 야학 광명학원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된다. 여기에 조언어말살정책이 시행되자 1935년 데뷔 이래 21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던 작가는 필필을 선언한다.

김동리는 일제강점기와 근대문학이 유입되는 혼란기에 전통 지향적 보수주의를 지향해 나간다. 그는 불교 사마니즘 기독교 토테미즘 등 복합 종교 체험을 작품에 녹여내면서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간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김종균 연구원은 "김동리의 전통 지향적 정신세계는 궁극적으로 불교와 사마니즘 및 동양정신의 원형인 도교였다. 김동리는 일제말기의 생생 상황과 근대주의 즉 모더니티의 도전에 그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으로 맞섰던 것이다."

다솔사 해인사 등에 머물며 집필 활동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초대회장 역임 대표작 <등신불> 불교정서 녹여내

그의 종교적 대응 방법은 민족 구원의 한 방안이었다. 이때만큼 김동리의 종교적 대응과 구원 정신이 빛날 때가 없었다. 그만큼 김동리는 일제말기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김동리는 1982년 설립된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불교설화 계승과 비유설화 등 아동문학자료로 어린이가 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불교어린이급진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불교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①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동리 작가의 생전 모습. ②KBS TV문학관에서 드라마로 방영됐던 '등신불'의 한장면 ③초대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을 지냈던 김동리 작가가 불교글짓기 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동리기념사업회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추모모음악제(11월 19~20일, 충무아트홀) △김동리손소희 서예 및 도자기전 △김동리문학 학술심포지엄 및 추모의 밤(12월 24일, 충무아트홀) △김동리문학 학생작품 공모 시상식(12월 24일) 및 책 발간 배포 △등산 걷림 △전집 발간 및 헌정식(11월 24일) 등을 펼친다.

한편, 소설가 김동리는 경북 경주에서 1913년 11월 24일 태어났다. 1934년 시 <백묘>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다.

1947년 조선청년문학가협회장, 1951년 동 협회부회장, 1954년 예술원 회원, 1955년 서라벌예술대학 교수, 1969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 1972년 중앙대학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소설집으로 <무녀도>(1947) <역마>(1948) <황토기>(1949) <귀환장정>(1951) <실존무>(1955) <사반의 십자가>(1958) <등신불>(1963), 평론집으로 <문학과 인간>(1948), 시집으로 <바위>(1936), 수필집으로 <자연과 인생> 등이 있다. 예술원상 및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08일간 펼치는 전통춤의 정수 '승무'

무용가 이철진 씨 성군소극장서 9월 8일까지

화요승무이야기로 승무 상설공연을 펼쳐왔던 무용가 이철진 씨(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가 108일간의 승무 이야기로 대중들을 찾는다. 이씨는 9월 8일까지 7개월간 대학로 성군소극장(매주 목요일~일요일 공연) 무대에 오르며 전통춤 완결편 '108승무'로 40년간 솔로 무대를 펼친다.

불교에서 파생된 '승무'는 불가의 의식무에서 시작 되었다. 승무의 의상이 되는 장삼과 고깔 그리고 붉은 가사뿐 아니라

를 다졌다. 춤은 곧 고행이자 구도자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철진 씨. 그는 고행과 수행의 과정 나아가 깨달음을 이룬 구도의 과정을 이번 승무 공연 속에 그대로 담아낼 것이다.

이 씨는 "단 한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공연은 계속 될 것이다. 공연을 보는 모든 이는 구도자의 고행과 수행을 고스란히 체험하며 스스로 또 다른 수행자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이철진 씨는 108일 동안 승무 공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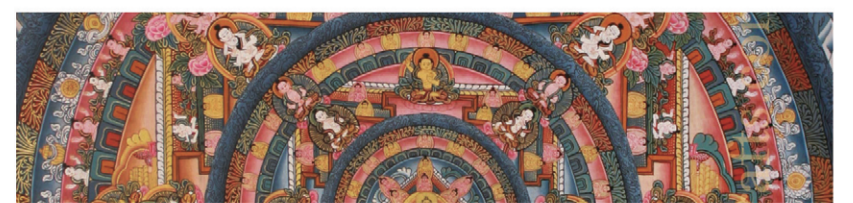
티벳불교의 보리도차제법, 대원만 예비수행의 지침서!

大圓滿前行引導文

대원만 수행 요결

-꾼상라매셀롱

A Guide to the Preliminaries of the Great Perfection



밀교와 현교를 관통하여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승한 정법!

어떻게 번민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행복과 자제함을 가져다줄 최고의 가르침!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넘나들며, 알기 쉬운 해설로 진실한 발심과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적에 최기원번저 · 수다지 캠프한역 · 지업역/신국판양장/574쪽/값 28,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